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2호 [루게 제25225호] 주제 105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의 5월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힘있게 파시하며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 솟아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윤동현 동지, 조용현 동지, 김정식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파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2월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공장을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으며 현대화공사에



1947년 7월 우리 나라의 첫 합선수리기지로 조직된 10월3일공장은 장장 수십년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왔다고 하시면서 2011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그날 주체적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10월3일 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꾸려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지금도 울리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계실 때 공장을 현대화하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러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을 떠나 공장의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는데 맞게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명도업적의 깃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약전작업반, 기관수리직장, 가공직장, 시운전장, 도크, 부두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3일 공장을 현대화한 결과 그 어떤 전투합선들도 짧은 기간에 수리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기관 및 선체의 원성능회복은 물론 통신, 탐지, 항해설비들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작기계들, 권양설비들, 측정설비들, 지주장비 등을 그르하게 갖추어놓았을뿐만아니라 모든 생산공정과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하시였다.

특히 컴퓨터로 기관고장원인과 원성능회복정형을 과학적으로 진단, 검증할수 있게 기관시운전장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술공정을 다른 선박수리공장들에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합선수리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크를 훌륭히 개건하였으며 부두와 호안공사도 흠잡을데없이 하였다고 하시였다.

이 따르없는 긴장한 전루를 벌려 연건축면적 5만 1,750여㎡에 달하는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에 대한 신설 및 개건을 진행하고 890여㎡에 달하는 부두 및 호안공사를 진행하였을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

로써 10월3일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명성이선박수리공장으로 일신시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뻬이를 하

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 부문에서도 본보기, 표준이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만 보아도 천지개벽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구내를 감싸고있는 갖가지 나무들과 주단마냥 펼쳐진 잔디들이 정말 보기 좋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니 합선수리능력은 종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합선수리주기도 훨씬 단축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에게 최상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을 명백히 구분하고 각종 문화후생시설들과 체육장 등을 손색없이 꾸려놓았으며 해안가지의 특성에 맞게 종업원들의 살림집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마치도 휴양소같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해군 무력강화발전에서 10월3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합선수리과제를 제때에 원만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대원을 튼튼히 꾸리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한사람이 여러대의 수자조종공작기계를 다룰수 있도록 준비시킴에 대한 문제, 종업원들이 공장애, 향토애를 안고 살비들을 애호관리하며 자기 집, 자기 직책을 가꾸는 심정으로 공장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할데 대한 문제, 자체와 공구, 부속품공급대책을 철저히 세우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해당 부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극한 정성이

곳곳마다에 스며있는 10월3일공장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낫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제일 뒤편어졌으므로 하여 늘 마음에 걸리던 공장이 오늘은 우리 나라의 선박수리부에서 제일 앞장선 문명향 공장으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나라의 선박수리기지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일떠세우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퍼를 쫓고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투쟁정신,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파시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수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짓부셔버릴 열의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이고있다고 하시면서 10월3일공장의 로동계급들도 천만군민의 거세한 숨결에 박동을 맞추어 공장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제아의 따스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평양에 또 하나의 거리를 건설할것을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발전지와 지열 등으로 해결하며 건축용상용에 온실을 조성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리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에서는 정치적면에서 이 계획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명거리건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열전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리명거리를 올해 중에 반드시 일떠세우데 대해 호소하시였다.

미국의 UPI 통신은 김정은명도자에서 리명거리건설을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거리를 낱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되게 변모시킬 거리로 일떠세우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거리는 락아소, 유치원, 세락소 등 공공건물들과 봉사망들도 들어서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로제아 24TV방송, 일본의 코도통신, 세네갈신문 《데 모프레르》, 민주

공과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내트롬에게, 도이힐란드제연단 인터넷트롬에게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망갈라데수신문 《데일리 스타》, 앙골라의 통신, 신문 《주르날 드 앙골라》, 알제리의 신문 《알 나하르 알 자리드》, 인터넷신문 《알 빌라드》, 베네수엘라신문 《코메오 델 리노》, 아제르바이잔의 인터넷신문 《데일리 뉴스》, 도이힐란드제연단 인터넷트롬에게 《현지지도소식들》, 슬로벤스크의 인터넷트롬에게 kldr, sk와 로제아 로스토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과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김정은명도자하고 브라질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트롬에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도

로메르 대기전세물임원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탈신문 《아르칸》과 네탈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탈기자협회, 네탈조선원선협회 인터넷트롬에게, 우루과이신문 《파 후벤두》, 체코신문 《브르스케용스카 브라브라》, 슬로벤스크의 인터넷트롬에게 kldr, sk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개발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슬로벤스크의 인터넷트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부의 판도르코트발사훈련과 《조선인민군 방공병정기대회-2016》을 보신 소식도 올렸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비엔리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라오스인민혁명당장정 61수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라오스인민혁명당과 형제적인 라오스인민이 혁명의 전위부를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존경하는 분당 위라범흥비시동지의 행동범에 귀 당과 귀국인민이 당 제10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3월 21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몽골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만

하에 마니바드라인 간폴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정성 위무성 부상과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 육군상장 윤봉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현동지, 홍영철동지,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국방과학부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타격수단인 신형대구경장거리방사포체계개발을 직접 맡기하시고 지난 3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며 무려 14차례나 화선에 나오시어 자기들과 의논도 하시고 방도도 찾아주시며 시험사격을 직접 지도하여 주신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속에 신형대구경장거리 방사포무기체계를 완성시켜온 지난 나날들을 돌아오는 걱정속에 돌이켜 보았다.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 들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위력한 대구경방사포의 실전준비를 앞두고

최종시험사격을 원수님의 지도밑에 또다시 진행하게 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가지하시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형대구경장거리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남반부작전 지대 적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주제무기개발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가 열리는 올해에 국방과학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받아안은 국방과학부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자강력제일주의를 국방과학연구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조선의 총진군

국제사회가 격찬

당에 대한 불타는 총성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기적과 사면들을 이룩하며 승리와 영광의 6월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국제사회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수리야신문 《날 새우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일곱번째로 당대회를 가지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제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면적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김정일평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

어 당창건 70년을 장식변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승리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작전, 당 제7차대회로 향한 힘찬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조선에서는 날에남마다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간의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고있다.

경공업부문 봉장들에서는 만부하의 응용높이 갖가지 식료품들과 생

활필수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알곡생산목표를 점명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완전성공한 조선의 수조산시험은 조선혁명의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의 첫 수조산시험 완전성공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조선이 수조산시험까지 성공시킨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적실패, 총파탄을 선고한 역사적사면이며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만민평면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국외의원인 양본지역위원

비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련사에게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눈부신 투쟁은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반 알타리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성공은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재의 힘과 기술로 마련한 위대한 창조품이며 조선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의 위력을 만천하에 퍼시한 획기적인 사면으로 된다. 이것은 또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7쪽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7쪽에 즈음하여 17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 외무성, 원동발전성, 동력성, 국가회의, 평화 및 통일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상공회의소, 정치연구 및 상담센터기금, 파쓰통신사, 인베르헨스통신사 등 정부, 국회, 정당, 단체, 기관 임원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성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성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백두산철새위원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한편 16일과 17일 울라지보스토크와 히바투스쿠주에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도 연회가 있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연방 국가주약으로 시작된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정양역에서 김영로 내각사무장, 배승만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임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단 출발

까지호스판에서 진행되는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아시아태권도련맹 위원장인

태권도선수단이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